



가족이기주의

저자 (Authors)	김동춘
출처 (Source)	역사비평 , 1999.5, 309-319 (11 pag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 1999.5, 309-319 (11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비평사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008543
APA Style	김동춘 (1999). 가족이기주의. 역사비평, 309-319.
이용정보 (Accessed)	성공회대학교 220.149.185.50 2016/01/10 20: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가족이기주의

김 동 춘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본지 편집위원

‘내 자식 제일주의’

지난 1992년 10월 서울 강남의 N 중학교 박모 교사는 공부시간에 카드 놀이하는 학생을 바로잡기 위해 매를 댄 것이 본의 아니게 뼈에 금이 가게 하였다. 그 교사는 학부모의 심한 항의에 교육자로서의 권위와 사랑에 대한 상처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오늘날 교사들을 가장 좌절시키는 것은 젊은 학부모들의 “내 자식 제일주의” 즉 자녀에 대한 과잉 사랑이다. 오늘날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젊은 부모들에게는 자기 자녀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들은 자기 자녀가 왕

자나 공주가 되어야 한다는 맹신 속에서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것만이 부모의 의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녀가 가난한 집 아이들과 어울리면 그러한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몇 년 전 강남의 어떤 지역에서는 동네에 장애자학교가 들어서 있는 것을 결사 반대하여 결국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신세대 학부모들은 자녀의 결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졸업할 때까지 아이의 결점을 학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백화점마다 국산 브랜드 자리를 밀어내고 뻑뻑하게 들어선 고급 수입 아동의류 매장, 일반 유치원 수강료의

두세 배를 받아도 학부모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미국식 유치원들, 유치원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의 단기 해외 영어연수 프로그램, 시간당 3만 원씩을 주고 미군부대에서 영어공부를 시키는 학부모들,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호화판 돌잔치 등 자식 기죽이지 않고, 자식 남부럽지 않게 기르고 교육시키자는 ‘내 자식 지상주의’, ‘내 가족 제일주의’ 열풍은 이미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이다. IMF가 터지기 이전인 1994년 강남에서는 월 1,020만 원을 과외비로 쏟아붓는 사람도 있었다. 『동아일보』 4월 27일자 <밀레니엄 키드>란에 따르면, 잠원동 모씨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전뇌개발교육’을 시키고, 손가락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 ‘찰흙놀이’를 하고, EQ를 키우기 위해 연극, 발레 공연, 중국·이집트 유물전을 관람시키고, 감성을 키우기 위해 남산을 산책하며 잉어에게 먹이를 주고, 기초가 중요한 국·영·수 교과목과 커서는 배우기 힘든 예체능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데, 보통사람들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67만 원을 두 아이 교육비로 투자한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유대인들도 어학교육을 중심으로 해

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어학·문학교육과 더불어 아이가 바른 유대인,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종교교육, 인성교육, 윤리교육을 병행하는데, 우리의 교육에서는 후자를 완전히 생략한 채 아이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만 초점이 두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도 기자나 편집자의 생각인지 실체가 그러한지 모르지만, 명색이 <밀레니엄 키드>라는 기획란에서 향후 2000년대를 살아갈 인간의 덕목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지는 한 줄도 언급이 없고, 오직 경쟁사회에서 ‘성공하는 인간’의 육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알미울 정도로 ‘자기 아이’의 육성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인간이 되는지는 상관하지 않은 채 일류대학 들어가고 출세시키기 위해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일부 상류층의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문화는 가족이 기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가족이기주의와 혈연의식

1950년대 이후 우리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치맛바람’, ‘돈봉투 내신 조작’, ‘도피성 조기유학’, ‘고액과외’, ‘과외비 마련을 위한 엄마의 파출부 일’, ‘촌지’ ‘명문대 예체능계의 부정 입학’ 등의 모든 부정과 비리현상들은 내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족이기주의의 표현이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정, 내 자식 제일주의 사고는 자녀의 인격수양, 인간됨의 육성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었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바로 아이의 학벌=출세를 통해 개인의 평생보장과 가족의 복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가장 실리적인 행동이었다. 매년 연말이면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판드는 수석 입학생의 스토리나 명문대학의 합격선 공개는 바로 자녀의 대학입학을 통해 가족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국의 원자화된 가족간 전쟁의 현장중계이다.

물론 가족이기주의는 근대에 들어서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유제가 현대적으로 변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흥보다는 효를 으뜸으로 여긴 우리의 유교적 전통 속에서는 유교적,

가부장적, 가족주의 도덕이 가족이나 혈연을 넘어선 이웃, 촌락이나 넓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규범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개인으로서 ‘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으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가족’은 조상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적인 ‘혈연’ 관계로 맺어진 구체적이지만 동시에 상상적인 공동체였다. 최봉영이 정리하는 것처럼, 가족은 단순히 가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으로서의 가장과 가족, 생업으로서의 가업과 가산, 행위의 규범으로서 가례, 종교로서의 가통과 가묘를 포함하는 하나의 전체적이고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가족은 개인 이전에 존재하며, 하나의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구성원을 조직하고 생업을 영위하고 종교와 의례를 행한다. 그리고 구성원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실현한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문명이 아직 발전하지 않은 곳, 특히 아시아의 유교국가에서는 가족적 유대가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한스 콘은 중국에서는 최근까지도 가족이 공감의 한계였고 전체 민족이나 다른 큰 사회집단에 대한 충성이나 헌신은 있다고 하더라도 극

히 적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주의는 일본은 물론 중국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였다. “조선사람들은 피를 좋아한다.” 이것은 일제하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두고 했던 말이다. 일본의 경우 전근대 사회에서 인민의 충성심은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 촌락, 사회계급으로 연장되었다. 중국의 경우도 자연촌락의 공동체적 유대가 가족의 유대만큼 중요한 비중을 지니고 있었으며, 한국보다 일찍 유교적 가족주의가 붕괴하였다. 우리에게서 공동체는 서구 자본주의의 전사로서 봉건적 질서,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여러가지 공동체적 생산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에서 공동체는 가족이었으며, 가족을 떠난 지역, 동리단위나 국가단위에서의 공동체성은 대단히 희박하였다. 즉 한국에서 공동체란 곧 혈연공동체를 의미하였다. 여기서 나를 포함한 ‘우리’의 이기주의가 짙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러한 가부장적이고 혈연주의적인 우리의식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행동하였다.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의미있는 규칙이나 도덕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에 대한 예의, ‘우리’ 집안에서 지켜져야

할 부자간·부부간·형제간의 윤리가 곧 사회윤리가 되었다.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는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종교적 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 제사에서 한국인들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공양하기 때문에 이웃, 촌락, 국가 등 여타 사회와의 관계는 부차화된다. 상을 당했을 때 제사에서 유복친(有服親)을 따지듯이, 가족주의 관계에서는 그것에 기초한 친소의식을 갖고 있다. 결국 자신과 피를 더 많이 나눈 사람들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남으로 대한다. 즉 같은 성씨나 같은 문중이라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촌수의 거리감에 따라 남이 되어버리고, 개별 가족은 원자화된 존재로서 타 가족과 대립하게 된다. 이렇듯 혈연에 기초한 가족주의는 이기주의와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 가족주의에는 내 가족을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내 가족을 행동의 기초로 삼는 이기주의의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가족주의 윤리에는 조상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두렵게 여기는 나름대로의 역사의식과 무도덕적 행동을 억제하는 ‘염치’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공을

우선시하는(先公後私) 가르침과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어 갖는 상호부조 정신이 사회의 붕괴를 막는 기동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거치면서 가족주의의 부정적 측면만이 더욱 강하게 착근하게 되었다. 전통적 가족주의는 개인을 가족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킨 근대화의 물결,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을 극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몬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이제는 내 가문, 내 문중이 아닌, 자신에 속한 소규모 단위의 핵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가족이기주의와 결합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된 가족주의의 성립사이다. 한국전쟁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배고픔과 이산의 한이 맺히면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고 몸부림치게 되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굶어죽었으면 죽었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윤리는 이제 억제할 수 없는 욕망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전쟁과 산업화가 낳은 가족주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농민을 비롯

한 서민들의 전통적인 체념과 복종·불신주의는 심화되었고, 겉으로는 국가에 복종하나 내용적으로는 이제 믿을 곳은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가족의 안전과 복리를 추구하는 신가족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붕괴는 피편화된 개인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자발적 조직화의 가능성을 좌절시키고 그들의 의욕 자체를 억제케 함으로써, 기존의 질서 속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편으로서 한국인들은 '교육'을 통한 가족단위의 안전보장과 지위향상 전략에 호소하였다. 전쟁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정치상황은 농민들을 더욱더 자기보존적인, 이기적인 존재로 변화시켰다. 그러한 국가주의, 관료주의는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과잉 교육열과 짝을 이루고 있었다.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195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족은 전통적인 확대가족, 친족을 의미하기보다는 기구 혹은 대소가라는 극히 제한된 혈연집단만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들만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 가족주의가 봉건적 가족제도와 가부장에 기초하여 가문의 명예와 가문·친족의

번영을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 태도나 행동들을 의미한다면, 현대의 가족주의는 이미 핵가족화된 가족을 하나의 분리 불가능한 공동체로 간주하고서 가족의 번영을 모든 가치의 우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방식을 밴필드(Banfield)나 갈통(J. Galtung)이 말한 것처럼 ‘무도덕적 가족주의’라 부를 수 있다. 김태길은 전통적인 유산을 강하게 반영한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가족주의를 첫째로 들고 있다. 그는 가족주의를 “가족에 대한 애착 내지 관심이 다른 의욕과 동기를 압도하고 행동의 주도권을 잡는 생활태도”라고 말한다.

한편, 전통적 가족주의가 조상을 두렵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조상을 모델로 여기면서 후손들에게 윤리적인 표본으로 삼는 나뉠대로의 역사 의식으로 뒷받침되고 있었다면, 현대판 가족주의는 현재의 가족 자체가 세속화된 종교가 되어버리고, 가족을 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공적 윤리도 무시하는 가족이기주의의 양상을 지니게 된다. 밴필드·갈통·김태길 등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가족주의는 무도덕성, 즉 공공윤리의 부재와 궤도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김태길은 한국의 가족주의가 금전만능주의, 쾌락주의와 공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

다. 아무런 공적·보편적 윤리도 뒷받침되지 않는 가족사랑은 곧 물질주의적이고 공리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족의 지위상승과 가족의 안녕은 세속적인 종교가 되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잉 교육과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표상되고 있다.

그런데 핵가족의 가족이기주의는 여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기 이전인 식민지시기까지 무속신앙은 바로 집안의 일에 매여 있던 여성들의 종교였다. 무속신앙의 신들은 집안의 수호신이었으며, 여성들은 그들의 도움과 은총으로 집안을 지키고 집안의 번영을 빌었다. 우리는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 해마다 설을 맞을 무렵이면 점을 보러 가던 어머니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폐쇄적 종교의식의 문제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은 가족주의와 결합되었다. 물론 현상적으로만 보면 기독교는 한국의 전통적인 것을 파괴하고 포기한 다음 기독교의 신앙과 문화를 배우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서광선이 지적하였듯이, 기독교의 도입과정은 혁명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기독교

가 오히려 무속화하였으며, 토착신앙과 결합되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가 무속적 테두리 안에서 복음을 개인과 집안의 문제로 묶어두는 내면화된 종교로 성장했다는 점에 있다. 물론 기독교는 전통의 미망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민중들에게 기독교는 사회윤리로서 개인과 개인, 가족과 가족을 규율하는 논리로서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가족단위 삶의 새로운 구원처로서 받아들여졌다. 부흥회의 열기와 교회건축의 열기는 바로 이들 원자화된 가족들의 해방의 축제였지, 사회적 정치적 변혁과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사회 선교활동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오직 개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나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의 성격을 지니는 것 역시 기독교 문화가 가족주의 문화를 극복하기보다는 그것의 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인 특히 도시의 중산층에게 가장 강력한 종교는 바로 가족종교일 것이다. 사회학자 라쉬(Lasch)가 말한 것처럼 가족은 “정이 없는 시대의 하늘”인데, 오늘을 피곤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가족이라는 것

은 곧 종교가 아니고 무엇인가? 가족 외부의 삶의 조건이 팍팍할수록 가족의 가치는 그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삶이 전쟁처럼 받아들여질수록 가족 가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시민의식 · 공공의식의 부재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는 가족만 있고 국가는 없다고 말한다. “맞아죽을 각오로” 한국인을 비판한 저서를 낸 일본인은 “한국인은 공중도덕은 제로 예요 제로”라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한국인에게는 가족을 벗어난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고,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가르침도 없다. 가족을 벗어난 사회는 남들이 살고 있는 전쟁터이다. “내 돈 서푼만 알고 남의 돈 칠푼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한국사람들은 자신과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닌 남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관심하고 배타적이며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신채호는 “한국동포는 공공심이 거의 없는 동포이다. 개인이 있는 줄만 알고 사회가 있는 줄은 모르며, 가족이 있는 줄만 알고 국가가 있는 줄은 모르니 이 어찌 뜻있는 이의 통탄할 바가 아니겠는가”라고 한탄한 바

있다. 공공성에 대한 무감각은 이미 식민지시기 이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재석이 강조한 것처럼, 건전한 시민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효를 중추로 하는 가족도덕이다. 효의 윤리에서는 나와 남을 분리하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오늘날 효의 가치가 사라진 마당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한국인의 모든 사회생활의 민주화, 직장생활의 민주화, 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있다. 가족주의 문화에서는 시종일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생활원리가 없다. 우리는 차가 다니는 길거리에서는 물론 생활현장 어디에서나 '나만 가면 되는 사회'의 모습을 목격한다. 그러한 질서의 한 구성원이 되어 가끔씩 그것을 비판하면서도 자기 문제가 되면 잊어버린다. 매년 그러했지만 지난 4월 중순 열린 여의도의 벚꽃축제는 쓰레기축제였다. 가족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악취를 풍기면서 벚꽃 향기를 압도하였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나들이 나와 배불리 먹고 벚꽃 향기를 즐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쓰레기는 그 후 며칠 동안 그곳 주민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부자들은 타

인과 사회를 위해 배를 줄을 모른다. 미국의 경우 부자일수록 많이 배운다. 대학이나 공익기관에 대한 거액 기부가 너무나 많아서 아예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도 프린스턴대에 1억 달러를 낸 홍콩 실업가 고든 유, 존스홉킨스대에 5,500만 달러를 낸 방송재벌 마이클 브룸버그가 언론 지상에 짧게 보도되었을 따름이다. 자신이 번 돈이 자기 능력 덕택만은 아니건만, 한국의 부자들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돈을 버는 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거나 엄청난하게 큰 불상을 세우는 데 헌금을 할지언정 사회의 뜻있는 일에 돈을 내는 법은 좀처럼 없다.

가족이기주의가 판치는 곳에서는 가족이 아닌 '남'과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인 신뢰·신용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 최봉영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연계적 성격은 가족주의에서 기인하고 있다. 즉 한국인들은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연계된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남으로 대처한다. 담보를 갖고 있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관행은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는 현

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자신과 연계된 사람이 보증을 서야만 대출을 해주는 관행 역시 신용부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후쿠야마는 이 점을 들어 한국에서 신뢰부족, 신용부채가 자본주의 질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힌 바 있다. 신용이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는 사람은 속이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든 속이거나 등쳐먹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일전의 어떤 일간신문 조사에 의하면, 멀쩡한 자동차를 카센터 10곳에 맡겼을 때 그 중 4곳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서 부속품을 교체했다고 한다. 그 신문은 그러니 속지 않으려면 단골 카센터를 만들라고 권고하고 있다. 단골이 되어 연계를 맺어야만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상거래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패거리주의’의 폐해

가족적, 혈연적, 지역적 연고와 무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이고 철저한 이용의 대상일 따름이다. 따라서 가족주의는 철저한 시장논리와 공존하고 있다. 가족주의와 시장주의, 물질만능주의는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을 억제하는 두 축이다. 월남자인

최승학은 한국사회의 이 험악한 경쟁주의를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비난하고 차별화해 있는 게 우선 충격적이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다. 세상물정 모르고 살아왔던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다.

가족이기주의는 수단가치와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가치를 중시한다. 그리하여 가족에 충성하기 위해 ‘사회’에서 저지르는 부정과 부패가 정당화된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정, 부패, 범죄는 기실은 가족 혹은 자신이 속한 연계적 집단의 가치를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가족이기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다.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의 온갖 부정과 비리, 편법적인 행태들 역시 대부분이 가족의 복리를 위해 추진된 것들이다. 사람들은 박봉에 허덕이는 관리들이 누구나 뇌물을 주면 별로 거절하지 않고 받으며, 일단 받은 후에는 거기에 대해 특별한 혜택이 자기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심이 약한 사람들은 이 약점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단체적 행동을 통해 정부의 도의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불평을 듣지만 제각기 내밀하게 특혜를 받으려고 뇌물을 줌으로써 일방으로는 부패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본다. 그리하여 염치를 버리고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발가벗고 뛰어온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주역들은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요 훌륭한 남편이었다.

부정과 부패를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도 가족을 위해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단이 무엇이든 일단 성공한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위를 정당화해주고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때 공적인 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적 연고에 의존하려고 하고, 그러한 연고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우리 사회의 과열된 입시경쟁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강력한 연계집단이 되는 학연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다. 박노해가 ‘출옥의 변’에서 말한 것처럼, ‘학벌이 없는 사람’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슬프고 힘든 일은 없다. 학벌은 혈연과 마찬가지로 험악한 세상, 이리떼와 같은 인간들이 모여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튼튼한 보호막이자 삶

의 지렛대이다. 가족이기주의는 이처럼 ‘패거리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주의의 긍정적 측면

물론 가족이기주의가 갖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가족주의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사람들은 1960, 70년대 경제성장의 동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면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근면성의 내적 동력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가족복리를 위한 헌신과 열정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은 지금의 40, 50, 60대들이 지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성세대, 특히 여성들은 가족을 위한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는 속성이 있다. 이 열정이 가족과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가족주의는 경쟁사회에서 버티도록 만드는 안식처요, 사회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병원이자, 생존경쟁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스펀지이다. 가족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분노를 곧바로 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순화시켜주는 사회질서 유지의 안전판

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 한국사회에서 가족이기주의로 인한 폐해는 크고,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열정을 다른 방향으로 틀지 않고서는 21세기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우리의 20세기가 가족이기주의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윤리, 도덕을 구축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가족이기주의 극복의 길

그렇다면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강유웨이(康有爲)가 말한 것처럼 이기주의와 보수주의, 가부장주의의 진원지인 가족을 해체하고 자유로운 남녀 결합의 모델을 구상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1. 우선은 가족주의의 물질 기반을 약화시켜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상속세를 엄격하게 매겨서 사실상 사회의 도움으로 형성된 부모의 재산이 자식에게 독점적으로 공짜로 이양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가족주의는 여성의 자기실현 기회의 봉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권 신장 없이는 가족주의의 확대·재생산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3. 우리가 가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사회복지,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확충되어 위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가족 혹은 친족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4. 가족주의는 시민사회의 저발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만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가족과 연계집단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기회를 높여야 할 것이다.

5. 오늘날 가족이기주의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연주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학교의 통폐합 등을 통한 대학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